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문자형성의 도서관적 의의

김 세 익*

<목 차>

- | | |
|-------------------------------|-------------------------|
| I. 서론——목적과 방법 | 1. 고대 orient문화 |
| II. 문자이전의 Communication Media | 2. cuneiform script의 해독 |
| A. Living book | 3. Hammurabi code |
| B. Quipus, wampum, 각봉 | F. Alphabet의 형성 |
| C. Pictograph | G. 한자의 세계 |
| D. 낙인 | 1. 한자의 특성 |
| III. 문자 커뮤니케이션의원초적 고찰 | 2. 한자의 명칭 |
| A.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관계 | 3. 한자의 기원 |
| B. 이집트의 Hierograph | 4. 갑골문자 |
| C. Orient 문화의 해명 | 5. 한자의 수효 |
| D. 표음문자의 개발 | 6. 한자의 구성 |
| E. Mesopotamia 제곡문화와 설형 문자 | IV. 결론——기술중점주의와 교양중점주의 |

I. 서론——목적과 방법

Elmer D. Johnson은 그의 유명한 저술인 도서관사의 제목을 Communication이라고 하고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본인식에서 고찰하고 있다. Pierce Butler도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에서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는 일종의 사회적 메카니즘이며 도서관은 이것들을 오늘을 사는 개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장치이다」¹⁾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Butler, P.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劉永玟譯. 延世大學校, 1961. p. 1.

라고 말한 것은 그도 역시 도서관의 본질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두고 있었다. J.H. Shera도 「지금까지 도서관이 커뮤니케이션의 한 기관이라는 지적은 벌써 여러사람들에 의하여 이야기 되었으며 이와같은 인식은 정당한 것이다」²⁾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의 사회 문화적 기능은 시대별, 국가별, 관중별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보편적 기능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주로 쓰여진 기록(graphic record)를 미디어로 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와같은 도서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문자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이 책으로 상징되고 책은 또 문자기록이기도 하다.

이 서론에서는 문자의 발생 형성과정의 전후관계를 나름대로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발표되었지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많으므로 이것들을 종합 정리하여 도서관사 전개 하나의 기점을 형성하고자 했다. 어원적으로는 Communication은 라틴어의 Communis에서 비롯된 것이며 영어의 Common 즉 공통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교섭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의미를 가진 기호가 교환되고 전달되어야만 가능해진다. 이와같은 공통의 의미개념은 주로 Graphic record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언어나 문자의 도서관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다음은 도서관학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역사상 최초로 도서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문체계로서 도서관학의 수립을 자각적으로 구상한 사람은 Martin Wilibold Schretling(1772-1851)였으며 독일 뮌헨(Munche)의 궁전도서관의 사서로서 1808년에 역사적인 저술인 Versuch eines Vollstandigen Lehrbuchs der Bibliothek Wissenschaft; oder Anleitung zur vollkommenen Geschäftsführung eines Bibliothekars in Wissenschaftlicher Form Abgefasst. Bd. I, II. Munchen, 1808-1829(도서관학전교정서론)을 발표한 이래 Friedrich Adolf Ebert(1791-1834) 그리고 Friedrich Rullman(1846-1909) 등을 거쳐서 마침내 1887년 Göttingen대학에 Bibliothekwissenschaft라는 강좌명이

2) Shera, J.H.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London, Asia Pub., 1970. pp. 61

로 대학 정규과목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Melvil Dewey에 의해 Columbia 대학에 The School of Library Economy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서관학교과 대학에 설치된것을 근대 도서관학의 학문적 시작이라고 부른다면 그 후 100년 동안 도서관은 여러가지 우여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 100년 동안 도서관학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결국 논쟁의 초점은 도서관학이 기술중점교육이냐 교양 중점교육이냐 하는데 있었다. 도서관학에 있어서 현장기술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술만으로는 학문이 될수 없으며 기술은 도서관학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사서는 일반교양과 문헌과 지식 정보의 세계(Literary Cosmos)에 관한 소양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서 이른바 기술중점사상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으며 그 반면에 도서관에서의 기술의 수련이 제일차적으로 요구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또 한가지 반성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이며 문화사적으로 도서관의 위치가 분명히 수립되어있지 못하다는 자성과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과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학에서는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하는 비판과 반성이 오래동안 계속되어 왔다.

1931년에 출판된 Shiyali Ranganathan의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와 2년 후 즉 1933년에 Chicago대학에서 출간한 Pierce Butler의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도 위에서 말한 도서관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두개의 저술의 기본사상은 도서관학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사상하고 도서관학의 Philosophy를 제창한 최초의 논문들이며 근대 도서관학의 발전에 크다란 공헌을 한 저술이었다.

Ranganathan이나 Butler의 학설은 근대도서관학 발전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개개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실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찾아내거나 이 모든 사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와 법칙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나 학문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후 Shera같은 사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 나름의 세계를 개척

해 갔지만³⁾ 만족할만한 상태는 아닌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Dewey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기술중점주의의 영향으로 1950년대 1960년대에 걸쳐서 도서관 기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었다. 한국의도서관학계에서는 기술과 교양이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 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1970년대부터 일기시작한 정보과학의 수용문제이다. 정보과학이 도서관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위치를 가져야 하는가? 정보과학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도서관학의 몰락을 뜻하는 것인가? 또한 서지학과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등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답은 용이한 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도서관학의 방향감각이 정립되지 못한채 혼돈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비단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 뿐만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혼란이 심하다고 생각된다. 도서관의 기능은 다양해서 그 중 한 가지 만을 추구할수 없는 성격이 있다.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책이나 정보를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정보검색이나 서지탐사만이 도서관의 기능이 아니며 특히 각계 각층의 이용자의 여러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기술과 더불어 의식이나 교양의 반경이 넓은 사서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사서는 기본적으로 책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책의 원초적 요소는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의 발생 초기상황을 살펴보았고 여러가지 문헌을 종합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해보았다.

II. 문자이전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A. 인간도서(living book)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문자기록이 가장 보편적이며 확실한

3) Shera, J.H. *Libraries and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London, Grosby Lockwood and Son, 1966.

방법이지만 문자는 훨씬 나중에 발생하였다.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초기에는 음성이나 동작(action) 또는 몸짓(gesture)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오늘날에도 반가운 사람에게는 손을 흔들거나 한쪽 눈을 감아서 윙크를 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주먹은 흔들며 보이고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 부정을 또 위 아래로 고개를 끄덕이면 긍정을 의미한다거나 얼굴을 지프리면 불쾌감이나 고민이나 오뇌를 나타내는 것 등은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다. 고대의 사람들도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이와 같은 단순한 몸짓이나 독장만 가지고는 의사 표시나 전달이 불충분해졌으므로 몇마디의 소리를 곁들여서 보다 다양하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게되었다. 문자 의전에 소리나 말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 언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물의 울음소리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2. 수렵하기 위하여 산야를 헤매던 마을 남자들이 잡은 많은 짐승을 메고 돌아올 때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들을 환영하는 부녀자나 아이들의 환호성에서 비롯되었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제작할 때 나는 소리에서 힌트를 얻었다.
4. 맹수같은 것에 습격을 당했을 때 서로 경계하라는 뜻에서 어떤 정해진 소리를 냈을 것이다.
5. 통증이나 신음소리등에서 말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동안 하나의 공통적 의미를 나타나게 되어서 말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⁴⁾ 문학의 시장이며 원형이라고 하는 호머(Homer)의 이리아스(Ilias)나 오딧세이아(Odyseia)도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음유시인(吟遊詩人)들에 의하여 읊어지고 후세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즉 음유시인에 의하여 문학이 형성되고 전승되었다.⁵⁾ 소련의 과학자이며 작가였던 이린(Ilin, M)은 그의 저서인 「Black on White」⁶⁾에서 이런것을 인간도서(人間

4) 田中正明. 文字印刷. 東京, 日本 Readers Digest社, 1974, p. 22.

5) Gliolier, Eric de. Histoire du Livre. 大塚幸男譯. 東京, 白水社, 1955, p. 12.

6) Ilin, M. Black on White; The story of Books, tr. by Beatrice Kincerd. Philadelphia, Lippincott, 1932. pp. 9-12.

圖書) 즉 living book라고 하였다. 전설이나 설화 옛날이야기등도 다 처음에는 인간도서에 의하여 전승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책의 구실을 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소리나 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해도 공기의저항 때문에 1km이상 전달 되지 못하고 그 소리자체는 단 1초도 보존시킬수가 없으며 인간의 기억에도 스스로 한계가 있다. 사회가 점차로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나 그 양이 증대 됨에 따라 인간의 지혜는 전달의 보존성,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갔다.

B. 결승문자(Ouipus). 색패문자(Wampum). 각봉(刻棒)

인간의 기억의 불확실성을 보충하여 보다 정확하고 보존성을 가질수 있는 방법으로 선사시대 즉 구석기 신석기시대에도 소박한 그림같은 것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으며 역사시대에 와서는 현재 우리가 학문적으로 확증지을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다. 그 최초의 구체적인 방법이 Quipus라 불리는 결승문자(結繩文字)이다. 그것은 새끼를 꼬아서 매듭을 짓거나 그 매듭으로 서로 연결시킨 모양을 가지게 하였고 또한 색을 칠해서 보다 다양한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결승문자의 표현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새끼의 매듭하나는 수자 1를 나타내고 2개는 2를 뜻하는 것 처럼 수자 표시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1미터 안팎의 양털로 꼬은 끈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만들어 1, 10, 100, 1000자리등을 나타내는 이른바 10진법을 구성하기도 했고 또 새끼의 색채로서도 뜻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검은 색의 경승은 죽음, 흰색은 평화나 항복 또 빨간 색은 전쟁이나 병사 그리고 노랑색은 황금, 초록색은 곡물을 의미했다. 따라서 빨간색의 2중 매듭 5개의 결승은 병사 500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A.C. Moorhouse는 이 결승문자의 시작 시기에 대하여 신석기시대부터 이와같은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뒷받침할수있는 증거가 없다.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정교한 결승방법이 남북아메리카, 일본, 티베트, 중국, 구라파 각지에서 그 증거가 발견된다고 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Herodotos)⁷⁾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페르샤의 정복왕이었던 다리우수(Darius)는 「스키유차」를 침략할 때 후방에 남아서 「다뉴브」강의 다리를 수비하게 된 그리스의 병사들에게 60개의 매듭이 있는 결승을 주면서 명령하기를 「내가 스키투아를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한 다음 하루가 지날때마다 하나씩 매듭을 풀고 60개의 매듭을 다 풀때까지 즉 60일이 지날때 까지 이 다리를 사수해야하며 그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전에 돌아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다. Quipus가 가장 정교한 형태로 사용된것은 잉카(Inca)족이었다고 Moorhouse는 말한다. 그들은 긴 막대기에 결승을 매고 그 결승에도 다른 결승을 여러 형태로 연결시키고 여러가지 색채가 칠해져 있었다. 그 다소 복잡하게 구성된 결승의 뜻을 알아내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수자 표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률이나 그들의 역사 기록이라고 페루에서는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방법이 현재에도 페루의 양치기들이 그들의 양의 수를 세는데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오지 농촌에서는 지금도 고산(竈算)이라고 하여 벗짚의 수로서 인부들의 사역표(使役表)나 출근표등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결승의 재료는 새끼뿐만 아니라 가죽끈으로도 매듭을 만들어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아기를 나오면 때문에 새끼를 걸어두거나 성황당같은데 새끼나 천을 찢어서 매달아두는 것도 결승의 풍습과 상통한다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결승과 비슷한 방법으로 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용한 Wampum(色貝)이 있다. 그들은 바다가에서 수집한 조개 껍질을 연결시키고 결승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색을 칠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하였다. 이것은 「색패문자」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도 색패의 크기나 빛깔 또는 그 연결방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하였다. 검정색은 죽음이나 불행, 흰색은 평화, 빨간색은 전쟁이나 위험 또는 병사를 의미했던 것은 결승의 경우와 유사했다. 이것은 우연이라 하기 보다는 그 시대에도 민족이나 부족간에 그 나름의 문화의 교류가 있었

7) Herodotos(B.C. 484전—30이후) 그리스의 歷史家. 각민족의 풍속이나 습관의 차이점을 잘 알고있어서 관습에대한相對主義的立場을 가졌고 인간의 교만에대한 神의 복수를 믿었다. 그를 「歷史의 아버지」라고 후세의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다른 부족에게 정치적 혹은 외교적 메시지를 보낼 때에 정교하게 연결되고 채색된 Wampum을 일꾼을 시켜서 보내곤 하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과정에서 결승문자나 색패문자의 해독법을 가르쳤다. 해독 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치 오늘날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수자나 가나다를 배우거나 더하기 나누기등을 공부하는 것과 같았다. 그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방법은 각봉(刻棒)문자다. 나무막대기에 기호를 새겨서 어떤 뜻을 나타나게 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잉그랜드의 지방농촌에서 주민들은 4개의 면을 가진 각봉(角棒)에 자죽을 만들어서 달력으로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17세기경까지도 통용되었다. 축제날이나 기념일을 나타내는 특유한 기호를 새겨서 그날을 알리게 한 것인데 그 특유한 기호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기호였고 처음보는 사동들에게는 적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오스트렐리아에서는 이 각봉문자를 선전포고에 사용하기도 했고 세루비아 사람들은 계산서나 착용증을 기호가 새겨진 각봉을 두개로 쪼개어 자점으로 사용해서 상거래에 이용하였다.

위에서 말한 결승이나 색패 그리고 각봉이 문제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그것들이 그 시대에 통용된 커뮤니케이션의 확실한 수단이였다는 것과 또한 말이나 동작 몸짓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인간은 기록하는 문자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방법이였다는 점에서 또한 문자의 발생과 발달이라는 역사과정에서 존재가치는 분명히 있다. 말이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그것들은 문자시대의 선구자적 구실을 했음이 분명하다.

C. 그림문자(pictograph)

결승문자 색패문자 각봉등은 말이나 몸짓에 비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한결 편리하지만 이것들은 사전에 어떤 상호 약속이나 설명이 불가피하다. 설명이나 약속이란 단제가 없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림을 구상적으로 그리면 그런 절차가 없어도 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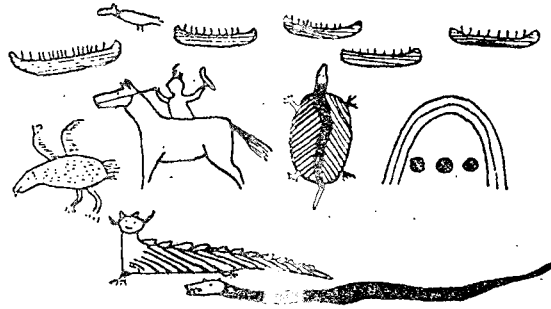


그림 2.

공통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전달형식이 된다. 아무런 예비지식 없이도 보통 지능만 있으면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 어느곳에 가더라도 펜과 종이만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여행자의 요구를 이해시킬수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림에는 이와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널리 사용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림과 그림문자는 다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 발생적인 행위에 속하며 그것은 그림 문자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의 소박한 원시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림의 예다. 이것은 캐나다의 슈페리어(superior) 호수부근에 있는 절벽에 그려진 그림이며 그들의 추장이었던 「마이엔간」의 공적을 기념하기위한 기록으로서 그가 이끄는 원정군의 묘사이다. 즉 왼쪽 선두를 가는 배에는 16명의 병사가 타고 있으며 두번째 배에는 9명 세번째배에는 10명 네번째 그리고 마지막 배에는 각각 8명씩 타고 있다. 그 원정군의 총수는 52명의 병사로서 편성되어 있다. 배 윗면에 있는 그림은 물총새인데 이것은 그 부족의 토템(Totem)⁸⁾이다. 그리고 그 전투는 3일로서 끝났다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하늘을 나타내는 둥근 천정아래 3개의 태양으로 표시하고 있다. 말을 탄 사람은 승리를 도와주는 마술사이며 거북은 무사히 상륙하였다는 표시이다. 왼쪽의 독수리는 전사들의 용기의 심벌이며 아래에 있는 뱀장어 같은 것은 가공의 생물이며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주

8) 토템. 생물이나 무생물을 특정한 부족과 혈연관계가 있다고 믿는 원시인의 신앙이며 그 부족에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붙였다. 이런 신앙을 Totemism이라 한다.

문(呪文)으로 호출된 것들이다.⁹⁾ 이 그림은 3일만에 걸친 원정의 양상을 표현한 그림인데 어떤 설명없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대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구실을 할수 있었다. 결국 이것은 그림이며 문자는 결코 아니다.

그림문자(pictograph)는 이와 같은 그림의 시대와 상형문자(hierograph)의 중간에 있었던 그림으로 상징된 문자를 의미한다. 즉 한마리의 소의 그림은 소한마리를 표시하는 문자적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그림이 점점 단순화되어서 마침내 상형문자로 그리고 더 단순화해서 문자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그림문자의 사용은 전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던 action이나 gesture 즉 인간도서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나 action 그리고 gesture 및 그림, 그림문자는 서로 공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림문자라고 믿어지는 동굴속 벽에 그려진 그림은 구석기 중석기 시대의 동굴이 발견됨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동굴 벽면에 그려진 그림은 들소, 말, 만모스, 그리고 조류, 벌레, 춤추는 그림,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예술적인 행위인지 종교적인 행사에 관한 것인지 또는 어떤 기록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문자사용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약 40,000년전에 그려진것으로 스페인의 altamira¹⁰⁾ 동굴의 들소그림과 불란서의 rasco 동굴의 들소그림이다. 1879년에 발견된 altamira의 동굴은 구석기 후기의 것으로 들소 뿐만 아니라 멧돼지, 사슴, 말 등의 생기에 넘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1940년에 발견된 불란서의 rasco의 동굴에 그려진 것도 구석기 후기의 것으로서 동물그림 외에 주술사(呪術師)의 그림도 그려져 있다.

이와 거의 같은 시대의 것으로서 알려진 Azilian Pebbles이 남부 불란서의

9) Ilin, M. op. cito. pp. 31-33.

10) altamira 동굴. 북부스페인의 산탄델주에 있는 구석기시대의 후기 동굴유적. 동굴 내부에 그려진 동물그림은 인류최초의 예술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동물의 그림의 약동성과 생기에 넘친 수법은 구석기 시대 회화중 최고 걸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스다질(Mas d'Azil)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채색된 조약돌이 여러개 한 장소에 있었다. 이 채색된 조약돌들의 의미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양식이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재산 소유권의 표시이거나 가계(家系)나 종족의 표시 혹은 하나의 토렘(totem)이라고 주장한다. 또는 소유하고 있는 가족의 수효의 표시 혹은 이 지역을 통과한 날짜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조약돌 표면에 소박한 조각이나 그림이 그려진 이와 유사한 돌들이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돌의 보존성을 이용하여 어떤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의도로서 그림문자의 초기 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낙인(烙印)

그후 원시인들도 생활이 발달해짐에 따라 점차로 개인의 소유물이 많아져서 남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동굴속에 그려진 간단한 그림 같은 것으로 도장을 찍게 되었다. 낙인을 만들어서 모든 자기 소유물에 찍거나 그려서 자기의 소유권을 확인시키게 하였다. 때로는 태양이나 달의 그림도 이 낙인으로 사용되었다. 때로는 토렘을 낙인으로 사용하였다. 한 가족의 구성원 각자가 고유의 낙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 각자의 낙인을 모두 찍어서 토렘볼(totem ball)을 만들어 그집 대문 앞에 세워두기도 했다. 이 토렘 볼에는 그 가족의 구성이나 그 가족이나 종족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였다. 이것도 문자는 아니지만 그림문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낙인법은 지금도 서부 아메리카나 오스트라리아에서 가족의 소유자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림과 그림문자의 차이는 단순한 그림과는 달리 몇가지의 그림을 조합 구성하여 어떤 복합적인 의미 즉 어떤 스토리를 구성한것이 그림문자이다. 알타미라나 라스코 동굴의 그림은 단순한 회화로서의 예술행위라는 설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로서의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진실로 소박한 그림문자는 문자창조의 시작이었다.

Ⅲ. 문자커뮤니케이션의 원초적 고찰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원시적인 방식 즉 말이나 action이나 gesture, 그림, 낙인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인간생활이 발전하고 복잡해 지면서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그와같은 방법으로는 일상 생활상항을 설명하거나 알리는 데 지장이 별로 없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후세에 남기고자 할 때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림문자가 보다 단순화되고 간략화 되어서 문자가 되는데 옛날 사람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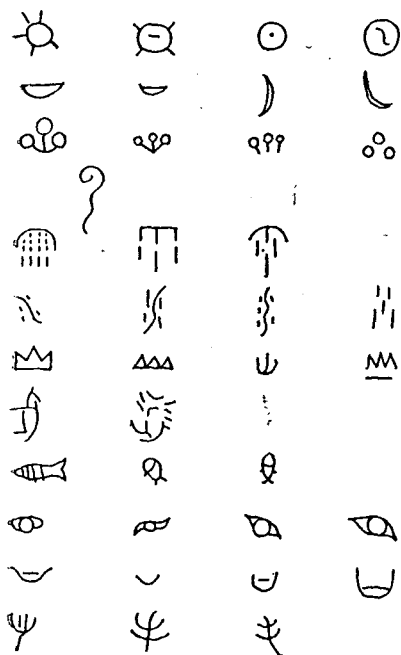


그림 1. 초기 문자의 형성과정

日 의식 속에는 태양이나 달,
月 별, 나무, 강, 그리고 산
星 같은데 신의 혼이 들어 있
雲 다고 믿었기 때문에 문자
雨 로 형성되는 순서가 그것
水 들이 가장 빨랐고 다음으
山 로는 인간의 신체 각 부분
豚 또 입은 옷이나 기후나 농
魚 경 신앙에 관한 문자가 그
다음으로 점차로 형성되어
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문자가 필요에 따라 지
혜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점차로 발달되었는데 고대
의 사람들은 이 문자가 신

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이집트 인들은 문자가 「토티스」신이나 「아이시스」신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인들은 「가도무스」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고 로마인들은 「머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것은 문자가 지니는 엄청난 편리성에 대한 경의와 신에 대한 독특한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A. 표의문자와 표음문자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문자들은 크게 두가지 체계로 나누게 되는데 그 하나는 그림문자에서 비롯된 표의문자와 말에서 온 표음문자다.

표의문자는 문자 하나 하나가 의미를 가진 것으로 그림이나 사물의 형상을 본딴 의미나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문자 상형문자 한자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림 문자나 상형문자는 이미 소멸되었지만 한자만은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사용되는 것은 한자의 특출한 특징과 중국문화의 깊이와 넓이를 말해 주는 것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문자의 형성과정에서 보면 이 표의문자는 그림문자의 후신으로 보아야 하며 한편 표음문자는 「로마자」 「아라비아문자」 「한글」 일본의 「가나」등 그림이 사용되지 않고 어떤 말의 일부를 나타내는 음을 표시하는 특별한 기호이다. 일반적으로 표음문자가 표의 문자보다 발전된 문자라고 인식되어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문자가 표음문자인 것으로도 알수 있다.

B. 이집트의 상형문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극히 단순한 생활을 하던 고대의 사람들은 그림 문자로서도 일상생활에 별 불편이 없었지만 점차로 문명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전하여 사회생활이 복잡해 짐에 따라 동물이나 새의 그림을 일일이 그릴 수 없게 되었고 또 외국과의 외교가 시작되어 외국지명이나 왕의 이름같은 것을 그림문자로서는 표현할수 없게되자 보다 간소화 되어 오늘날에 문자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집트 문명에서도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집트 문자는 3가지 서

체(書體) 즉 신성문자(神聖文字) 또는 비밀문자(秘密文字)라고 하는 Hierograph, 승용문자(僮用文字)인 Hieratica, 민중문자(民衆文字)인 Demotic이다. 가장 오래된 Hierograph는 B.C. 4000년경에 쓰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¹¹⁾ Hierograph란 말은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이며 회람말로 신성한 자자(刻字)라는 뜻이다. 신성하다는 의미는 이 문자가 신관(神官)에 의하여 신성한 종교기록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문자는 대부분 고대의 분묘나 기념비등에 석각(石刻)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 비밀문자라는 것은 Hierograph가 1822년 Champollion에 의하여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해독될 때까지 수천년 동안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기왕조시대(B.C.2160—1788)에 와서는 상형문자가 더 간략화 되어서 Hieratica가 사용되었고 신왕조시대(B.C.1580이후)에 와서 더욱 간략화 되어서 민중문자 라하는 Demotic가 사용되었다. Hieratica는 석각에서 벗어나서 papyrus에 쓰게되었다. Hierograph와 Hieratica는 같은 문자로서 모든 Hieratica는 Hierograph로 전사(轉寫)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차의는 서체(書體)가 다를 뿐이다. 한자식으로 말하자면 Hierograph는 해서(楷書)체이고 Hieratica는 행서(行書)체이다. 또 Demotic는 초서(草體)체에 해당된다.

C. 오리엔트문화의 해명

불란서 혁명이 끝난후 현명정부로 부터 이집트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나폴레온」은 1798년 7월에 수만의 불란서 군인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 「아렉산드리아」에 상륙하고 이주동안의 전투로서 적군을 물리치고 수도 「카이로」에 입성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pyramid war이다. 「나폴레온」은 용감 무장한 군인일 뿐만 아니라 문화인으로써 또 독서인으로도 유명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pyarmid war 때에도 많은 학자나 미술가를 대동했고 진중문고(陣中文庫)도 마련했다. 이와같은 「나포레온」의 문화적 관심이 부하에게도 침투되고 있었다. 「나포레온」은 문무겸비(文武兼備)의 대표적인 인물

11) Moorhous, A.C. Writing and the Alphabet. tr. by masashi Neju, Tokyo, Iwanami, 1972. p. 66.

이었다. 어느 날 그의 부하인 장교 Boussard가 나일강 하구의 Rosetta란 마을에서 작전중 알 수 없는 고대 문자가 새겨진 비석 같이 생긴 돌을 땅속에서 발견했다. 높이 1m, 넓이 70cm 폭 30cm의 흑색 현무암으로 된 비석이다. 비문은 상, 중, 하의 3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마다 다른 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상하는 없어졌지만 위에는 아마도 신이나 왕의 모습이 조각



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에 있는 문자는 14행의 Hierograph 중간것은 32행으로 된 Demotic이며 아래의 것은 54행으로 된 Greece문자였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비문의 해독에 열을 올리게 되었고 마침내 1802년에 Weston이 아래 부분의 Greece 문자의 영어 번역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이집트문자는 해독하지 못하고 있던 중 불란서의 오리엔트 학자인 「사시」와 스위든의 외교관이었던 「오켈부랏트」는 중간 Demotic 문자를 부분적으로 해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었던 열쇠는 이 비문의 세가지 부문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과 Ptolemaios나 Alexandro 같은 왕이름이었다. 이것들은 고유명사였으므로 Greece 문자나 Demotic문자와 같게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단의 Hieratica가 완전히 해독되기 위해서는 실로 이 비석 발견후 20여년의 긴 세월이 흘러야 했다. Champollion은 1822년 9월 그 오래고 고된 연구 끝에 마침내 Rosetta stone의 상형문자 해독에 성공했다. 이집트 상형문자의 해독에 의하여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 하나 베일을 벗게 되었으며 Napoleon과 Champollion은 이집트학발전의 주역이 되었다. 그때 32세의 청년 학자였던 Champollion도 10년후 불란서에서 크게 유행했던 코페라에 걸려서 요절하고 말았다. 지금 대영박물관에는 이 Rosetta stone이 소중히 전시되어 있고 서가속에는 Champollion이 오랜 연구생활에서 사용한 대학노트수백권이 그 필적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고대 오리엔트사 해명의 결정적계기가 된 이 Rosetta stone이 불란서의 루블박물관에 있지않고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Pyramid전쟁에는 승리한 불란서 군도 그후 영국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영국의 전리품으로서 1802년 영국에 가게 되었다. 비록 그것이 영국에게 빼앗겼지만 불란서에는 미리 정확하게 복사해 두었기 때문에 연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Rosetta stone에 쓰여진 문장의 내용은 B.C. 200년경에 이집트의 신관(神官)들이 「멘피스」에 모여서 만든 당시의 이집트 왕인 Ptolemaios 5세¹²⁾를 찬양한 송덕문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12) Alexandro대왕이 33세로 죽자 방대한 그리스였토의 3통치를 위하여 세부분으로 나누워 그 중 이집트는 ptolemaios家에 의하여 통치되었다.

돌고 돌아서 Rosetta의 땅속에 파묻혀 있던것이 2000년후에 Napoleon군대에 의하여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금석학(金石學)¹³⁾ 연구의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 Rosetta stone해독에 공이큰 사람에는 이들이 외에도 영국의 언어학자인 Thomas Young도 있다.

2. 표음문자의 개발

그림문자에서 발전된 표의문자는 처음부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 인간의 사회활동이 복잡해지고 인간의 사고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새 표의문자를 계속적으로 창출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표의 문자는 증가일로를 걸어 이것들을 배우고 기억하기란 용의 한 일이 아니었다. 가장 대표적인 표의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고문자(古文字)는 춘추전국시대에 사용된 것인데 겨우 5,000자 정도였던 것이 청나라 때 나온 강희사전(康熙字典)에는 40,545자가 실려 있다. 이 중에는 사어(死語)도 있겠지만 이 많은 문자를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알파벳이나 한글을 배우기 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된다. 이와같은 한자의 험디깁을 없애기 위하여 최근 중국대륙에서는 단순화된 음성서사체계(音聲書寫體系)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에서 완전히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표의문자의 시각성이나 직관성 같은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표의문자는 근본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문화국가에서 B.C. 4000년경 부터 벌써 표음문자어의 전환작업이 시작되었다. Manson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인류가 달성한 가장 뛰어난 지적업적(the most signal intellectual achivement)¹⁴⁾라 하였다. 실지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25자의 자음(字音)에 일련의 기호와 2개

13) Epigraphy. 금속이나 비석 기타유물등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古考學과 文獻學의 중간적 학문이며 歷史學, 古考學, 文獻學 연구에 없어서는 안되는 보조학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조 선조 때 이우(李侯)의 大東金石帖, 大東金石書 등이 있고 秋史 金正의 北溟山 眞興王 巡狩碑 해독등도 있고 廣開土王碑 연구도 유명하다. 中國人인 劉燕庭은 한국의 金石文을 연구하여 「海東金石苑」 「海東金石存放」 등의 저서를 남겼고 일제 때에는 조선총독부에서 「金石總覽原稿」 「朝鮮金石總覽補遺」 등을 편찬했고 日人 葛城未治의 朝鮮金石攷가 있다. 金石學의 分派로서 印章學이 있고 古錢學등이 있다.

14) 小野泰博, 圖書, 圖書館史. 東京, 雄山閣, 1978, p. 26.

의모음을 표시한 또 다른 75개의 기호를 만들었다. 이것이 완전한 표음문자는 아니고 일종의 음절(音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언어 전체가 표음기호(phonetic symbol)로도 표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통적인 표의문자와 이것을 겸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표음기호는 외국어를 고쳐쓸때나 고유명사에만 사용하였다. 이집트 상형문자는 초기에는 그 수가 약 600자 정도였으나 한자의 경우처럼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차로 그 수가 증가되었다. 쓰는 방식도 초기에는 한자의 경우처럼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왔고 얼마 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 쓰다가 나중에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쓰게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대 이집트의 석각에는 이 세가지 방법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와같은 표의문자의 결정적인 결함을 인식하고 표음문자를 개발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표의문자가 기록의 주종을 이루었고 이것이 완전히 표음문자로 전환하기까지는 수천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특히 한자의 경우 수천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표의문자가 지니는 장점과 옛것을 쉽게 버릴수 없는 중국인들의 회고적 애착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문자를 쓴다는 일은 처음부터 신관(神官)이나 승려(僧侶)계급, 그리고 정치적 지배계급의 특권이였으며 그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 모르도록 문자를 난해하게 하고 신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른바 우민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⁵⁾ 고대 이집트인들이 표음문자를 개발한 후에도 상당기간동안 표의문자와 혼용한 이유는 음이 같으면서도 뜻이 다른 것 즉 homophone¹⁶⁾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우리 말에 들면 다리(橋)와 다리(脚)를 구별하기 위하여 표음문자 옆에 두가지의 다리의 그림문자나 상형문자로 쓰게 되었다. 이집트의 금석문 중에는 이런 방식의 표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E. 메소포타미아 계곡문화와 cuneiform script(楔形文字)

고대 이집트문화와 함께 4대문화권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설

15) *ibid.*, p. 27.

16) 同音異字, 同音異綴語. meet와 meat, foul과 fowl 등.

형문자를 개발했다. Sumer인들을 비롯한 고대 Mesopotamia인들은 진흙으로 빚은 점토판(claytablet)을 만들어 그것이 채 마르기 전에 식물의 줄기 끝이나 나무조각으로 글을 새겨서 그것을 태양빛에 말리거나 불에 구어서 단단하게 만들었다. 글자가 소위 썰기 모양으로 된 것은 글 쓰는 펜의 끝이 삼각형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설형문자인데 주로 그림문자에서 발전한 표의문자로 시작되었지만 이집트의 경우와 같이 표음문자도 점차로 첨가되어 독특한 모양의 설형문자가 발달되었다.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데 반하여 Mesopotamia인들은 서사재료로 점토판을 사용하였고 그 영구성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원형을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나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들은 찬란했던 고대 Orient문화의 상징이며 그 소산이었다.

1. 고대 Orient 문화

Orient란 말은 현재 지리적으로는 동양 즉 중국, 한국, 일본등을 지칭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대 Orient는 역사적인 용어로서 현재의 동양과는 다르다. Orient란 말은 로마인들이 「빛은 동방에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 인도의 Indus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인다스 문화에서 시작하여 Mesopotamia문화 그리고 지중해 일대의 문화와 이집트문화를 이은 이른바 비옥한 반달형(Fertile Crescent) 문화를 의미한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로서는 Indus강 동쪽은 관심밖에 있었으며 B.C. 5000년경에 이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고대 Orient 문화에 대한 동경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 Orient문화가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로마문화를 탄생시켜 서양문화의 모체가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Tigris와 Euprates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인데 Mesos는 사이(間) potamos는 강(江)의 뜻이니 Mesopotamia는 강과 강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옛날부터 홍수로 유명한 이 두개의 강은 Persia만으로 흘러가며 이 지방에는 양질의 진흙이 많이 있어서 이것으로서 그들은 점토판을 만들어 설형문자 문화를 형성했다. 메소포타미아 계곡에는 옛날부터 많은 민족들이 홍망성쇠를 거듭했는데 그중에서 설형문자를 가장 초기에 사용한 것은 Sumer인이었다. B.C. 3000년경에 그들은 설형문자를 발

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60진법을 사용했고 양털로 옷을 만드는 방직기술의 개발 zigrad라 불리는 거대한 인공산(人工山)을 만들어 신을 모시기도 했다. Akkad Sumer인들은 약 600개의 설형문자를 사용하였다. Sumer인들의 세력이 쇠퇴됨에 따라 Sem인들이 Mesopotamia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가지 나라를 만들었지만 Hammurabi왕이 나온 Babylonia 제1왕조가 가장 잘알려져있으며 그 시대에 편찬된 세계 최초의 성문법(成文法)인 Hammurabi 법전은 설형문자로 비석에 새겨져 그 중 일부는 지금도 루블 박물관에 남아 있다. 설형문자를 사용하던 많은 Mesopotamia국가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최초로 오리엔트를 통일한 것은 B.C. 700년경의 Assyria였으나 가혹한 정치지배때문에 B.C.600년에 Assyria도 멸망하고 B.C. 6세기 말에 이르러 Kyros가 Persia왕국을 건설하고 Darius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다시 오리엔트를 통일하였다. 배화교(Zoroastrianism)¹⁷⁾를 믿는 Persia는 점점 그 세력을 서방으로 확장하여 8세기경부터 지중해에서 활동하고 소아시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신흥 그리스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마침내 이 두 세력은 충돌하게 되어 B.C.490년에 Peria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중 마라톤 전쟁은 아테네의 동북방 40km 지점에 있는 마라톤에서 10,000명의 그리스군이 Persia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이 소식을 아테네에 보고하기 위하여 젊은 사자(使者)가 아테네까지 너무 빨리 달려갔기 때문에 그 승전의 보고를 하자마자 죽었다. 올림피경기에 마라톤 경주가 있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Persia는 점점 쇠퇴되어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왕 Alexandoros대왕에게 완전히 정복되었다. 이리하여 옛날부터 발전 계승되던 오리엔트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그리스문화가 합쳐지면서 Hellenism문화가 형성되어갔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잡하던 시대에 지중해의 동쪽 끝에 위치한 「파레스티나」에서 유

17) Persia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예언자 Zoroaster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그의 의하면 이 세계는 광명, 정의, 진리, 행복, 건강 등을 상징하는 선신(善神: Ahura-Mazda)과 부정, 허위, 암흑, 질병, 불행 등을 상징하는 악신(惡神: Ahriman)과의 대립과 투쟁이라는 二元論으로 설명하여 이 투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불을 상징하는 善神이 승리한다고 믿기 때문에 拜火教라고 부른다. 중국 唐나라에서는 천교(天教)라고 했고 인도에서는 파지교라고 불렀다. 배화교의 경전은 Zend Avesta이다.

대교가 발전했고 B.C.1세기부터 A.D.4세기에 이르는 사이 즉 로마시대에 이르러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다.

2. 설형문자의 해독

현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의 중간지점에 Behistun이란 마을에 50미터 높이의 암석산에 고대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스키타이(scythai)의 세가지 문자로 새겨져 있는 비석이 옛날부터 있었다. 이것을 Behistun Rock라고 불렀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비석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비석의 중앙에는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데 몸집이 큰 남자가 부하 두명을 대동하고 있고 그 남자는 발로 한 남자의 목을 짓누르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9명의 몸집이 작은 남자들이 한줄로 서 있다. 또 비석의 상부에는 신의 상이 그려져 있고 고대 설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어느 지리학자는 그것은 학교의 그림이며 몸집이 큰 사람은 선생이며 작은 사람들은 학생들일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조각의 인물이 모두 12명인 점에 착안하여 예수와 예수의 12제자들이라고도 말했다. 이처럼 수 천년전부터 이 신기한 Behistun Rock에 대한 여러가지 억측이 있어왔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영국의 젊은 군인 학자인 Rawlinson에 의하여 그 비밀의 베일이 벗겨졌다. Henry Rowlinson¹⁸⁾은 shah(王)의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에 파견되었다. 1835년 그는 이 돌산에 올라가 비석의 조각물을 면밀히 조사하고 탁본을 떠서 그후 10년동안 연구한 끝에 마침내 그 난해한 설형문자를 해독하게 되었다. 그의 연구의 결과 그 몸집이 큰 남자는 선생도 예수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왕이었던 다리우스(Darius) 1세였다. 다리우스 1세가 B.C. 500년에 왕위에 오르고 페르시아제국내의 여러 반란군을 진압한 것을 기념하고 또 그의 위업을 천하에 과시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웠다. 왕이 밟고 있는 것은 학생이 아니고 「가우마다」라는 반란군의 두목이며 포승으로 양팔이 묶인채 한줄로 서있는 9명은 포로들이다. 또 그 위에 조각되어 있는 신은 「아푸라마즈다」라는 배화교의 신이었다.

18) Sir Henry Creswicke Rawlinson(1810-1895) 영국의 아시리아 학자, 군인, 외교관으로서 페르시아의 군사고문, 주 페르시아공사(1859-60) 등을 역임. 저서에는 상형문자사료집 5권이 있다.

Champolion에 의하여 이집트 상형문자가 해독되고 Rowlinson에 의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가 해독됨으로서 비로서 고대 오리엔트문화가 점차로 해명되었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전승되는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절감하고 도서관의 문화사적 의의를 인식하게 한다. 또한 고대 문자나 언어에 대한 지식의 의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wlinson이 이 설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열쇠는 Rosetta stone의 경우와 같이 Darius왕이나 Xerxes왕의 이름을 판독하는데 있었다.

3. 함무라비 법전(Hammurabi code)

설형문자로 된 비석에는 Behistun Rock 외에 함무라비법전도 특기할만하다. 이것은 1910년 수사(Susa)에서 발견된 설형문자로 쓰여진 성문법전(成文法典)이다. 함무라비왕이 바비로니아에 군림한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학설로서는 B.C.18세기경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함무라비왕은 즉위후 22년 되던해에 이 법전을 제정 공포했으니 지금부터 약 3700년전의 일이다. 전문 282조가 정교한 설형문자로 조각된 이법전은 심판, 재산, 가족, 노동, 처벌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과 그 당시의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함무라비법전의 법률적 특징으로서는 보복주의, 준사형주의(私準刑主義) 그리고 불평등 원칙등이다. 예를 들면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그 아들의 손을 자른다(195조). 196조에는 자유민의 눈을 빼면 그가해자의 눈을 빼다. 또는 만약 자유민의 이를 부러트리면 가해자의 이를 빼버린다(200조). 얼핏보면 평등한 형벌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자유인이란 사람은 이른바 귀족이나 상류층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류층사람이 중류층이나 하류층사람의 눈을 빼면 그의 눈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 1마나¹⁹⁾를 지불하면되었다. 또 피해자가 노예인 경우에는 그 노예값의 절반만 지불하면 된다(199조). 오늘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개념과는 거리

19) 마나와 슈겔은 본래 무게의 단위이지만 그 당시 금이나 은이 화폐였기 때문에 그 무게가 곧 상품가치를 표시했다. 1슈겔은 약 800gr.이고 1마나는 60슈겔이기 때문에 약 490gr.이다. 그리고 60마나가 1타랑트이며 약 80kg였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는 60진법이 사용되었다.

가 떨어졌다. 옛날에는 법도 지배체급을 위한 것이었다.

만약 은이나 금이나 남자노예 여자노예 그리고 또 소나 양이나 당나귀나 그외에 어떤 것이든 증인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사거나 저당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도적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7조)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계약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 바비로니아 시대의 많은 계약서가 점토판에 설형문자로 쓰여진 것이 발굴되고 있다. 결혼때에도 계약서가 절대로 필요했으며 만약 결혼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128조)라는 조문도 있다. 또 만약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여 이혼하고자 할 때는 당국자는 그 사정을 잘 조사하여 아내에게 잘못이 없고 남편에게 하자가 있는 것이 판명되면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결혼할 때 지참해 온 모든 혼수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수 있다(142조)라는 조문은 그 옛날에도 여자 측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대 오리엔트 사회에서 여권의 신장을 의미한다. 함무라비 시대로부터 약 1000년전 슈멜시대의 법에는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강물 속에 던져버린다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1000년사이에 여권신장의 많은 발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남녀평등이 보장된것은 아니며 143조의 후반부에는 만약 아내가 외출을 자주하여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남편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면 그 여자는 강물에 던져진다고 쓰여져 있다. 이것은 1000년전의 슈멜의 법의 모방이다. 이 처럼 함무라비 법전은 슈멜(Sumer)의 법전이나 그외에 있었던 여러가지법전의 조문을 계승한것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함무라비 법전은 새로운 독창적인 법전이라기 보다 옛날부터 바비로니아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법전들을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시대에 맞도록 282조의 법전으로 정리하여 만든것이며 이것이 큰 비석에 설형문자로 조각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함무라비가 바비로니아에 산재해 있던 여러 도시 국가를 정복하여 하나의 중앙집권국가를 완성한 위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융성하던 함무라비 왕조도 얼마 안가서 소아세아에서 일어난 히타이트(Hittites)²⁰⁾의 침입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복수의 관념은 그후 1000년을 지나 쓰여진 구약성서에 그대로 나온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뺀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니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좇아 낼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과 개념도 같지만 문귀도 같이 표현되어 있다. 실험문자에 의하여 전송된 예라고 할 수 있다.

F. 알파벳(Alphabet)의 형성

알파벳트는 그리스어알파벳트의 첫글자인 α 와 두번째 글자인 β 를 합친 호칭이다. 표음문자의 대표격인 이 알파벳트는 고대 이집트인들도 개발했지만 표의문자의 습관에서 탈피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표의문자 옆에 써서 그 발음을 도와줄 정도였다. 보다 편리한 표음문자만으로 문장을 쓰게 된 것은 그런 정통의 압력이 없었던 신흥민족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파벳트로 인정되는 것은 영국의 고고학자인 페트리(Sir Petrie)²¹⁾경이 이집트의 동쪽 시나이 반도에서 발굴한 비문에 쓰여진 문자다. 일견 이집트의 상형문자 같지만 사실은 이집트문자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진 셈(Sem)²²⁾문자였다. 이 비문은 B.C.2000년경에 이집트 12왕조 시

20) B.C.2000년대 말엽에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인종이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의 한 부족인 히타이트인들이 소아시아로 침입하여 강력한 정복국가를 수립하고 B.C. 1700년경부터 팽창하기 시작하여 바비로니아 왕국을 위협하며 시리아로 진출하여 이집트의 신왕국과 대결하였다. 그들은 야금에 뛰어난 솜씨를 보여 오리엔트에서 최초의 철기문화를 창조하고 동서의 중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물을 에게 해와 그리스로 전하는 데 공헌했다. 특히 철기문화를 오리엔트에 전파한것은 그들의 큰 영향으로서 이로부터 오리엔트의 청동기문화가 서서히 철기 문화로 변해갔다.

21) Sir William Mathew Flinders Petrie(1853-1942) 영국의 이집트학자. London University college의 이집트 학교수(1892-1933).

22)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수도한 부족 셈족의 무리가 일찍부터 투쟁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화들 이룩하였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B.C. 3000년경 수메르족(Sumerians)이 청동기 문화를 이룩하면서 라가수(Lagash), 우리(Ur)등의 도시국가를 형성한것이 그 초기이며 그후 바빌로니아인(Babylonians)에 의하여 전성기를 이루고 얼마후 앗시리아(assyria)의 오리엔트 통일에 이르기 까지 셈족의 흥망성쇠는 여러 민족이 얽혀져서 복잡하다. 셈족(Semites)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셈에서 온 말이다.

대에 시나이반도에 있는 광산에서 터키보석을 파던 셈인들이 쓴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던 시나이 반도의 그 광산에서 채광노동을 하던 셈인들이 감독하던 이집트의 관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집트문자를 배우고 그것을 그들에게 편리하게 만든 문자이며 이것을 시나이문자라고도 한다. 이 셈문자가 더욱 발전된 형태가 된것이 그후 시리아, 파레스타나지방에서 발견되었으며 더욱 발전되어 페니키아(Phoenicia)문자로 변해갔다. 이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이스를 거쳐 로마 문자로 발전되었다. 지중해 연안 시리아 지역에 셈족의 페니키아인(Phoenicians)은 그들의 토지가 협소하고 척박하였으며 또 해양에 접해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무역과 해상활동을 통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여 시돈(Sidon) 티레(Tyre)등의 도시국가와 지중해를 건너 카르타고(Carthage)에도 도시국가를 건설하여 지중해의 주인같이 행세하였다. 특히 비부로스(Biblos)항은 무역, 상업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명의 중심이여서 새로운 지식이나 학문이 이곳에 모여 다시 사방으로 전파되었다. 그리이스인들은 이 비부로스항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많은 종이를 수입하였다. 그리이스어의 파피루스(Papyrns)는 이 비부로스(Biblos)에서 온 말이다. 페니키아인들은 22자의 자음(子音)으로 된 알파베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이것들은 그리이스 알파베트의 처음 22자와 흡사하여 나중의 로마알파벳으로 발전한 그리이스 알파베트의 모체가 되었다. 이 페니키아 알파벳의 모체는 앞에서 말한 셈어였다. 따라서 그 발전 경위는 셈어 →페니키아 알파벳 →그리이스 알파벳 →로마알파벳가 된다.

그리이스 알파벳의 성립은 B.C.1100—900년경이며 처음에는 페니키아 알파벳과 비슷한 것이었지만 점차로 그리이스 특유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페니키아인들은 문장을 쓸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썼지만 그리이스인들은 그와 반대로 좌에서 우로 문장을 썼다. 그리하여 24자의 그리이스 알파벳가 아테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그리이스 알파벳으로 확립되었다. 또 페니키아 알파벳은 자음(子音)뿐이었으나 그리이스인들은 여기다. 모음 a.e.i.o.u.를 첨가하여 발음하기 쉽게 하였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실이었다.

그리스 알파벳에서 로마알파벳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 단계 엘트루시안(Etrusean)의 알파벳이 있다. 엘트루시안인은 B.C.8세기경에 역사상에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그리스인이나 페니키아인들과 해상 무역에 종사하며 현재의 로마와 그 북방일대를 지배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문자도 그리스에서 온 이민들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그들은 24자이 알파벳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알파벳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스와 로마를 잇는 중요한 교량역할을 했다. 특히 주목할 일은 오늘날 영어를 비롯한 다른 많은 알파벳에 쓰여진 문자를 읽는 방법은 엘트루시안 알파벳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투루시안인은 고대 이태리에서 가장 유력한 인종으로서 초기 로마의 정치 종교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 로마 알파벳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1,500단어정도가 비문이나 이쥘트 미이라를 감싼 이마포에 쓰여진 것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채 있다. 이 메투루시안 알파벳이 로마인에 의하여 라틴문자(Latin Letter) 즉 오늘날의 로마 알파벳이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약 4000년전에 아시아의 서쪽끝 시나이반도에서 시작된 알파벳이 페니키아인들의 지중해 무역을 통하여 발달하여 구라파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문자가 되고 에투루시안 문자 그리고 로마문자가 되었고 한편 그리스 문자에서 파생된 스라브문자가 러시아나 표젠티등의 슬라브 여러나라의 문자가 되었고 다시 아시아로 되돌아와서 아시아 여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라틴 알파벳 즉 로마자가 모든 서구언어의 모체가 된 것은 거대한 힘으로 전구라파를 통치한 로마제국의 권위에서 비롯되었다. 로마 교회의 언어가 전유럽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네델란드어와 같은 Garmanic Languages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등의 Romance Languages, 그리고 폴란드어, 크로아티아어(유고의 서북에서는 부족) 체코어(보헤미아, 모라비아에 사는 슬라브민족) 등의 Slavonic Language로 그리고 핀란드, 헝가리등의 Fino-Ugrian Language 등으로 발전 정착하게 되었다.

G. 한자의 세계

도서관의 책은 대체로 3가지 언어적 유형이 있으며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어 등으로 된 동서(東書)와 영어나 독일어 불어 등으로 된 양서(洋書) 그리고 한문자로 된 한적(漢籍)이 있다. 한적은 현대 한문자로 된 것도 있지만 고서(古書)라고 불리는 옛날 것이 대부분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한자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나라에는 많은 학적이 있었다 옛날에는 「전적(典籍)의 나라」라고 불릴만큼 많은 책을 생산하여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에 책을 적지않게 수출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도 세 차례에 걸친 병화(兵火)를 맞아서 수없이 수난을 겪어야 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이유없는 방화로 서원이나 사찰이 타버려서 그 속에 있던 귀중한 장서가 소실 되었고 그 전의 몽고란 때 입은 손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두차례의 수난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남은 전적과 임란 이후에 편찬한 책 들도 6.25동란 때 또 타격을 입어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쓸 만한 고서가 없다고 까지 할정도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의 책의 3대수난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재도 서울대학교의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대학 도서관에는 고서가 상당수 소장되어 있다.

1. 한자의 특성

이집트의 상형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와 같이 한자도 고대문자의 하나이며 상형문자와 설형문자도 처음에는 한자처럼 표의문자였으나 점차로 편리한 표음문자로 변해서 굳어졌지만 유독 한자만은 표의문자로 수천년을 지속되어 온데는 그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본토에서는 현재 모택동의 문자 혁명의 의지에 따라 약자보다도 더 간략한 기호 비슷한 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약자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한자의 생명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은 한자의 우수성과 중국민족과 중국문화의 강인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자의 문자적 특성의 하나는 그것은 단음절(Monosyllabic language) 언어이며 또 동사의 변화 같은 것이 없으며 문중의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지

기 때문에 이것을 위치어(Positional language) 또는 그입어(Isolating language)라고도 부른다. 이런 특징은 다른 어느 문자와도 다르다. 또 한자를 표의문자(Ideograph) 또는 표어 문자(表語文字, Logograph)라고도 한다.

2. 한자의 명칭

한자의 본래의 이름은 주나라 때에는 명(名)이라 불렀고 춘추전국시대에는 문(文) 또는 자(字)라고도 했다. 진(秦)나라 이후에는 문과 자를 합쳐서 문자(文字)라고 불렀지만 일반적으로는 자(字)라고 했으며 이 명칭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글”에 대비하여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명이며 우리 글자를 “한글”이라 하고 일본 글자를 “가나”라고 부르고 서양 글자를 “알파벳트”라 칭하는 것과 같다. 사실 중국에서도 한자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몽고문자를 비롯한 다른 나라 문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부른다.

3. 한자의 기원

세계 문자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찾아하고 있는 한자의 기원설에는 옛 불은 여러 학설이 있어왔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크게 세가지 설로 나눌수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도 전설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 팔계(八卦) 설

상서(尙書)²³⁾에 의하면 상고시대 B.C.3000년경에 북회황제가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진 그림 하도(河圖)를 보고 천지 자연의 현상과 대조시켜서 상징적으로 팔계를 만들었고 이 팔계로부터 감괘 “☰”에서 “수(水)”를 이괘 “☲”에서 “화(火)”를…… 이런 방식으로 한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서계(書契)라 한다.

b. 창힐설

여씨춘추(呂氏春秋)²⁴⁾ 한비자(韓非子)²⁵⁾ 설문해자(說文解字)²⁶⁾ 등에서는

23) 書經의 별칭. 五經 및 十三經의 하나. 上古에는 書. 漢代에는 尙書. 宋代에는 書經이라 하였다.

24) 26권. 진(秦)나라 여불위(呂不韋)의 찬이라 하나 실상은 그의 빈객이 수집 편찬한 것으로 십이기(十二紀) 팔람(八覽) 육론(六論)으로 나뉘어 총 160권이다. 기사는 대개 당시의 유서(儒書)에서 수록하였고 도가(道家)나 묵가(墨家)의 것도 섞여있다. 일명 여람(呂覽)이라고도 부른다.

B.C. 2700년경에 사관(史官)이었다 창힐(倉頡)이 새나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서체(書契)를 고안해서 그 이전의 결승문자(結繩文字)와 바꾸어 한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c. 육서(六書)설

삼본(三墳)²⁷⁾에서는 상고시대 복희황제가 주양에게 명하여 육서(六書)²⁸⁾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와같은 설들은 결국 전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가 정확하게 언제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 졌는가를 말할수는 없는 것은 이집트의 상형문자나 메소포타미아의 설형문자의 경우와 같다. 어떤 특정한 인이나 특별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구한 세월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시대에 따라 점차로 정리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 한자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은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은나라 때 한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그 기원은 비록 전설의 세제로 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위에서 말한 세가지 전설 중에서 창힐의 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창힐이가 B.C. 2700년경에 팔괘등을 토대로 하여 한자를 만들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창힐에 대해서는 상고시대의 제왕이라는 설도 있고 황제(黃帝)의 사관(史官)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갑골문자(甲骨文)

19세기 말엽에 중국 하남성(河南省) 안양현(安陽縣) 소둔촌(小屯村)의 발

25) 전국시대 말기의 법가(法家)의 대성자(大成者)인 한비가 찬한 20권이며 내용은 형명사상(刑名思想)의 제창. 한비의 원이름은 한자(韓子)이나 후세 당나라의 한유(韓愈)를 한자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한비자(韓非子)로 일컫게 됨. 형명사상(刑名思想)은 한비자가 주장한 학설로서 나라의 관리를 통용하는데 그 사람의 의문 곧 명(名)과 그 사람의 실제(刑)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주장. (刑은 形)

26) 후한의 허신(許慎)이가 지은 자해서(字解書).

27) 삼본오전(三墳五典)은 중국고서명으로 삼본은 삼황(三皇)의 책이고 오전은 오제(五帝)의 책인데 지금 전하지 않음 삼황은 중국고대의 천자(天子) 즉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 황제(黃帝). 오제는 소로(少昊), 전욱(顓頊), 제곡, 요, 순.

28) 한자의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여섯종류. 곧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해성(諧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에서 농부들에 의하여 문자가 쓰여진 갑골의 단편들이 발견되었다. 이 거북의 등뼈나 다른 동물들의 뼈를 그곳 사람들이 용골(龍骨)이라 믿었고 만병통치의 영약으로 알아서 약국에서 팔리게 되었다. 청나라 광서(光緒) 25년 즉 1899년 서지학자인 왕희영(王懿榮)이 마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하여 용골을 구해다 먹었는데 그 때 그 뼈에 이상한 고대문자가 쓰여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유악(劉鵬) 나진옥(羅振玉) 동작빈(董作賓) 등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하게 되어 갑골학(甲骨學)이란 새로운 학문분야를 형성하였다. 최초의 발견으로 부터 약 반세기동안 10만편도넘는 갑골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72,000편은 1928년 이전에 실시된 개인적인 발굴작업에 의한 것이고 그외의 28,000편은 중국 중앙연구소를 비롯한 학술단체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조사 발굴되었다.²⁹⁾

갑골은 연약하여 오랜 세월을 땅 속에 있었으므로 거의 전부가 단편들이며 그 단편에 기재된 글 즉 갑골문자는 1자에서 100자 정도이며 평균 10자에서 20자 정도이다.

쓰여진 글은 모필로 쓰여진 것과 각사(刻寫)된 문자를 붉은 색이나 검정색의 안료(顏料)로 바른 것들이다.³⁰⁾

현재까지 조사된 갑골문자의 총수는 100만을 넘지만 중복되어 나오는 것이 많아서 개별적인 갑골문자의 어휘의 수는 자수로 4,600자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 1000자 정도가 학자들에 의하여 해독되었다. 나머지는 인명이나 지명을 포함한 것이 많아서 아직도 해독되지 못한채 있다.³¹⁾

은허(殷墟)에서 발견되는 갑골문은 주로 점복(占卜)의 기록들이다. 이것을 복사(卜辭)라 하는데 국가나 왕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인(貞人)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였다. 이 때에 갑골을 사용하였고 불의열로 말미암아 갑골의 표면에 생기는 균열의 모양을 보고 길흉을 알아내고 그 점괘에 대한 설명을 적은 것이 복사이다. 갑골문자는 물론 복사만은 아니고 그 갑골자체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은나라 때 지방의 제후들이 은왕

29) 董作賓, 甲骨五十年, 臺北, 1955, pp. 185-188.

30) 錢存訓, 中國古代書籍史, 宇都不羣譯,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80, pp. 28-29.

31) *ibid.* pp. 31-32.

조에 구갑(龜甲)을 현상하는 것은 중요한 행사로서 현상된 구갑에 현상한 제후의 이름이나 수효같은 것이 기록된 문장도 발견된다. 또한 군사원정에 관한 기록도 있다. B.C. 12세기 전반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갑골도 발견되었는데 그 각사(刻辭)에는 서방의 어느 나라를 점령할 때 1,570명의 포로와 다량의 전차, 180개의 투구등을 획득했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따라서 은나라 시대에는 갑골이 보편적인 서사재료였음을 알 수 있다.

5. 한자의 수효

로마자나 한글 같은 표음문자일때에는 글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표의 문자인 한자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사용되어 오는 동안 계속적으로 자수의 증가현상을 보게 되었다.

은나라 시대의 갑골문자의수는 4600자정도 한 나라 때 허신(許慎)이 편찬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9,353가 수록되어 있고 송나라 요현(姚鉉)이 편찬한 당문수(唐文粹)에는 26,194자 청대의 강희사전(康熙字典)에는 40,545자가 수록되어 있다.³²⁾ 그러나 이 많은 수의 한자가 현재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어(死語)가 된 것이 상당수가 있어서 중국에서 일반 서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는 약 400자 정도라고 한다.

6. 한자의 구성

한자의 구성원리를 6종으로 나누어 이것을 육서(六書)라 하였다. 즉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이다 그러나 육서의 원리에 따라 한자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한자의 구성을 종합 분석해서 여섯가지로 귀납한 것이 육서이다. 육서의 명칭과 순서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육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허신의 「설문해자」에 따르고 육서의 순서에 대해서는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 따르고 있다.³³⁾

32) *ibid.* p. 44.

33) 후한의 안제원년(A.D. 121)에 원신(A.D. 95-124) 이는 중국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 15권을 편찬해냈다. 여기에는 9,353개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고 그「문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구성에서 540개의 部首로 분류설명했다. 반고(A.D. 32-92)는 후한의 역사가로서 아버지인 반(班)가 司馬遷의 「史記」의 뒤를 이어 後漢一代의 역사를 편찬하려다 중도에 죽자 班固는 아버지의 遺志를 계승하여 漢書를 편찬했다.

한자의 구성을 크게 나누어 형(形)과 성(聲)로 하고 상형, 지사, 회의는 형에 속하며 형성, 전주, 가차는 성에 속한다.

1) 상형

물체의 형상을 본 뜬 것으로서 모든 문자의 출발은 상형에서 비롯되며 육서의 조(祖)가 상형이다. 문자는 처음에는 그림과 다름이 없었으나 그림은 그 형(形)을 그렸고 글씨는 그 상(象)을 본뜬기 때문에 그림은 끝내 변하지 못했으나 글씨는 그 상형으로 부터 지사·회의·형성·전주·가차 등을 받게 하였다. 그 일례를 들면 고전에 있어서 <日>은 <日>자이고 <山>은 <山>자 <水>은 <水>자이니 그 형체를 본따서 만든 것이다.

2) 지사

생각이나 뜻을 나타낸 글자로서 상(象)을 뜰 수 있는 것을 상형이라 하는데 대하여 상을 뜰 수 없는 것을 지사라 하였다. 상형이 물체의 구체적 표시라면, 지사는 물체의 추상적 개념을 표시하여 문자를 만든 것이다. 고전에 있어서 일례를 들면 상<上>과 하<下>를 <一> <一>로 썼는데 <一>은 땅을 표시하고 위에있다는 一 아래에 있다는 <一>으로 표시하였다. 또 중<中> 본<本> 등의 글자는 이러한 지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3) 회의

뜻과 뜻을 합한글자로서 2자 또는 2자 이상의 문자가 결합되어 다른 뜻을 나타내게 하는 조자의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人)의 말(言)은 믿을 수 있다고 하여 <信>자가 되었다.

4) 형성

음과 뜻을 합한 글자로서 상형에다 성음을 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동음어의 글자가 동일한 문자로 되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한쪽에 표의적인 변을 사용한 글자를 형성문자라 하며 한문사전의 10분의9가 이 형성문자다.

이것은 이미 있는 글자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형과성의 배합에는 여섯가지 방법이 있다. 즉 좌형우성에 강·하<江·河>, 우형좌성에 구·합<鳩·鵠>, 상형하성에 초·조<草·藻>, 하형상성에 파·사<婆·娑>, 외형내성에 원·

포<圃·圃>, 내형의성에 문·문<聞·問> 등이다.

5) 전주

동일한 글자를 파생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전주라 한다. 즉 어떤 한 글자의 형<形>·음<音>·의<義>를 가지고 별도로 만들고자 하는 글자의 내용에다가 전유<轉輸>·관주<灌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주의 개념이 학자에 따라 구구하여 잘 이해 할 수 없으나, 간단한 예를 들면 <노·고<老·考>, <역·영<逆·迎>, <통·달<通·達>>등이니 이는 원 글자의 뜻이 모두 같으므로 그것들을 가지고 운용하여 새로 만드는 글자 속에다 관주시켜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6) 가차

글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빌어서 쓴 글자이다.

새로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빌려쓰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발령<發令>>의 영<令>자를 <명령<命令>>의 영<令>자로 차용하였고 <현령<縣令>>의 영<令>자도 명령<命令>의 영<令>자를 차용한 것이니 이것은 한 고을에 있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자의 조자방법을 종합하면 상형·지사·회의·형성의 네가지를 썼고 기성의 한자를 응용하는 방법으로는 전주와 가차 두 가지를 썼다고 볼 수 있다.³⁴⁾

Ⅳ. 결론——기술중점주의와 교양중점주의

지식과 정보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도서관의 고객은 다양하다. 학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만 봉사하는 것도 아니며 기계검색이나 서지 탐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가 다양하듯이 그들의 도서관에 대한 기대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다. 사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수한 도서관을 위해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서가 지녀

34) 東亞世界大百科事典, 동아출판사.

야 할 교양의 양과 질은 엄청난 것이라 하겠다. 학자나 연구자와의 대화도 가능해야 하지만 어린이들의 소박한 독서생활의 지도도 요구된다. 한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할이 75% 책이 20% 그리고 건물과 시설이 5%³⁵⁾라고 한다. 따라서 한나라의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우수한 사서양성의 제도와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사서양성 기관을 가지고 있다.³⁶⁾ 현재 4년제 대학의 도서관학과 만도 30여개교가 있다. 여기에서 수학한 사서들이 내일의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를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이들에게 실효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내일의 도서관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적 감각이 요구된다. 컴퓨터를 비롯한 이른바 도서관적 기술을 습득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도서관이 계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켜주어야 할 깊고 넓은 교양이 갖추어져야 한다. 「책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이다. 책의 세계 문헌의 우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 대한 이해 책에 대한 이해 인간의 독서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내일의 사서의 자질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35) 岡田温, 世界の圖書館, JLA, 1973, p. 39.

36) 미국은 약 300校, 영국은 전문학교까지 합쳐서 12校정도, 카나다는 5, 6校, 불란서는 대학 과정이상인 2校, 서독 6校, 덴마크 1校, 스웨덴 1校, 노웨이 1校, 中國, 北京大學 武漢大學 2校 其他 通信大學, 夜間大學, 講習會 등이 있음, 臺灣, 臺南大學, 臺南師範大學 2校, 印度 17, 18校 비올빈, 國立비올빈大學 1校, 이람 카이로大學 1校, 아프리카 1校, 南亞聯邦 1校.

THE SIGNIFICANCE OF FORMATION OF LETTERS AS COMMUNICATION MEDIA IN LIBRARY CIRCUMSTANCES

KIM, Se-Ick

Abstract

The langu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ventions in the human society, and it can be preserved as a form of book which is printed or written by letters. So, the language and letter can be basic factors in the library as communication media.

Moreover, when we regard all of library activities as a communication, the study of the language and letter which is the origin of communication media can be a good research method of library history.

For this reason,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formation of three representative ancient letters, i.e. Hieroglyph, Cuneiform Script, and Chinese character with their relations.